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의빈\*\* · 권서영\*\*\* · 김유이\*\*\* · 임수지\*\*\*\*

##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과잉간섭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초 4 패널의 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총 1,964개의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경향을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변수들 간 관계의 방향성과 다중공선성 문제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모 과잉간섭과 우울 간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의 순차적인 매개효과 또한 유의미했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가 고등학생 자녀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사회적 위축, 부정적 교우관계를 각각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또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는 고등학생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킴으로써 부정적인 교우관계 정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차례로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의의와 함의를 논의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며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부모의 과잉간섭, 우울, 사회적 위축, 부정적 교우관계, 매개효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교신저자, lebhin@naver.com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I. 서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릴 만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하는 청소년기는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 2019년 기준, 중·고등학생 10명 중 3명(28.2%)은 최근 1년 중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만큼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 있다는 통계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기 우울은 학교 적응(유지애, 김옥진, 2018), 삶에 대한 만족도(강석임, 이윤정, 정명숙, 2019)와 자살 생각(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2010)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후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McLeod, Horwood, & Fergusson, 2016), 이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우울의 영향 요인들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다양한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환경적 요인들이 논의되어왔다.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의 성취 지향적 분위기와 압력,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심각한 수준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윤신애, 채규만, 2016),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기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어왔다(김서현, 김예솔, 임혜림, 2013; 김현순, 2014). 이처럼 청소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할 수 있음에도 본 연구가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교우관계와 우울 간 관계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청소년기 친구관계는 정체성 확립,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소속감 형성과 같은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제들과 깊은 관련을 맺는 요인이다(최규련, 2010). 더욱이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주된 생활의 장으로서 기능함에 따라, 그 안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안녕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Fiorilli, Capitello, Barni, Buonomo & Genile, 2019), 부정적인 또래관계(우채영, 2010)가 우울을 증가시켰다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위 논의는 원만하지 못한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는 우울감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청소년의 우울과 부정적인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위축을 꼽을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인 관계 및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회피하거나(Rubin, Coplan & Bowker, 2009), 고립된 행동(Rubin, Coplan, Bowker & Menzer,

2014)을 보이는 경향을 일컫는데, 개인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한다(김은아, 배민영, 2016; Frazer, Cooley, Fite & Poquiz, 2018).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Rubin et al., 2009)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위축이 사회적 차원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다룬 우울, 부정적 교우관계, 사회적 위축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부모 양육태도를 간과할 수 없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생활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본 연구는 과잉간섭적 양육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념상,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수 있고(최미혜, 2015), 핵가족화라는 사회 현상의 영향으로 소수의 자녀에 양육이 집중됨에 따라 부모-자녀 간 관계가 밀착되어(신희수, 안명희, 2013), 과잉간섭적 양육이 문제라고 인식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대입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업,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모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관심과 간섭이 증가할 수도 있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문화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김가연, 박주희, 2018; 정문경, 2020), 사회적 위축(김윤경, 박주희, 2018; 이은경, 이선희, 2017)을 증가시키고, 자녀의 원만한 또래관계(김수진, 장형심, 2019)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어왔다. 이는 우울과 부정적 교우관계, 사회적 위축의 영향 요인으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위축과 교우관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들(이은경, 이선희, 2017; 최태산, 김자경, 2016)과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녀의 교우관계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김봉금, 김상철, 2017)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위축과 교우관계가 각각 부

모 과잉간섭과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함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신선미, 이소연, 2017),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이의빈, 2020)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자녀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와, 사회적 위축이 또래관계 피해경험을 통하여 우울에 영향(이승연, 송경희, 정혜원, 2018)을 미쳤다는 논의들은, 부모의 과잉간섭이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차례로 부정적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리라 짐작케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과 사회적 위축, 부정적 교우관계와 우울 간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과잉간섭은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사회적 위축은 부모의 과잉간섭과 청소년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 〈연구문제 3〉 부정적 교우관계는 부모의 과잉간섭과 청소년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 〈연구문제 4〉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는 부모의 과잉간섭과 우울 간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변수의 개념

#### 1) 우울

불행하다고 느끼는 감정, 울적함을 포함하는 우울은(이정선, 이형실, 2012),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 중 하나로, 청소년 생활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기 우울은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McLeod et al., 2016). 청소년기 우울은 기질, 성향 및 성격(곽영희, 정현희, 2011; 김보경, 민병배, 2006)과 같은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내적, 외적 변화 속에서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할 수 있는 발달

적 특성과 더불어 맥락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조운영, 배희진, 정현희,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이처럼 우울을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내적 요인과 함께 부모 양육, 대인관계 관련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부모의 과잉간섭

과잉간섭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양육태도를 가리킨다(허묘연, 2000). 과잉간섭적 양육태도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율적으로 행동할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과잉보호와 같은 양육태도 유형과 유사한 측면을 공유한다.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 추구는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욕구이자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과잉간섭, 과잉보호,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상의 욕구 충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이란 사회적 관계들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 행동의 억제, 또래 거부, 수동성,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립된 행동들을 가리킨다(Rubin et al., 2009; Rubin et al., 2014).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자신의 나이에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들을 보이지 못하기도 하고(Rubin et al., 2014),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은아, 배민영, 2016). 더욱이 청소년기 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기인데, 사회적 위축은 이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rzeva, Meedus & Oldehinkel, 2019). 이는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기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사회적 위축의 위험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4) 교우관계

학교가 청소년기의 중요한 생활터전이 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인 교우관계는 큰 의미를 지닌다.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사회적 지원과 정서

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평등의 가치, 상호성 등의 대인관계적 가치들과 기술들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며(Atwar, 1996; 정옥분, 2008에서 재인용). 정신건강(우채영 외, 2010), 학교생활(임수경, 이형실, 2007)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후, 사회적 관계들을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김경신, 박옥임, 임형택, 이민창, 김오남, 2009), 청소년기 교우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 변수 간 관계

### 1) 부모 과잉간섭과 우울

자녀를 자율성을 가진 개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사결정, 문제해결을 할 기회를 제한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김가연, 박주희, 2019; 김봉금, 김상철, 2017; 정소희, 이경희, 2016; 정문경, 2020; 최태산, 김자경, 2016)하고 과잉으로 보호하려는 양육태도(김원영 외, 2017), 그리고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양육태도(김희경, 김해란, 2017; 안명희, 2014; 한아름, 김정민, 강슬아, 2018; Cui, Morris, Criss, Houlberg & Silk, 2014; Ha & Jue, 2018)가 자녀의 우울을 증가시킴을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Costa와 동료들(2016)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심리적 욕구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Soenens와 동료들(2012)은 자녀를 의존하게 만듦으로써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위 논의들은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하게 한다.

### 2) 부모 과잉간섭과 사회적 위축, 교우관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임성범, 2017). 그중에서도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 통제하며 지시하는 양육은 자녀가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Rubin et al.,

2014).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김윤경, 박주희, 2018; 신선미, 이소연, 2017; 이은경, 이선희, 2017; 최태산, 김자경, 2016), 부모의 과보호(김부경, 오윤희, 오강섭, 2005)와 심리적 통제(서경현, 2012; 최은경, 임정하, 2018; 한아름, 김정민, 강슬아, 2018)가 사회적 회피 및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켰다는 연구들은,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위축(이의빈, 2020), 사회불안(Kouros et al., 2017)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 위 논의들은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개입, 간섭하려는 양육은 자녀를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하리라 유추하게 한다.

더 나아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또래관계(김봉금, 김상철, 2017; 김수진, 장형심, 2019)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심리적으로 통제하려는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하며(Rubin et al., 2009), 친구 관계의 질에도 영향(박지은, 설경옥, 정희원, 2016; Baumgardner & Boyatzis, 2018)을 미침이 보고된 바 있다. 위 논의들을 통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사회적 위축 또한 원만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위축이 또래관계 및 애착(김은아, 배민영, 2016; 박은정 외, 2018; 정일영, 2019)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괴롭힘 피해(박혜정, 홍상황, 2014; 이승연 외, 2018; Frazer et al., 2018; Rubin et al., 2009)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여왔다. 이와 같은 논의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 3) 사회적 위축, 교우관계와 우울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우울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증가(김보영, 장은비, 2015; 김원영 외, 2017; 김은서, 정슬기, 2019; 박애리, 2014; 신혜정 외, 2014; 이승연 외, 2018; Rubin et al., 2009)시킴을 일관적으로 보고하여왔다. 사회적 위축의 관련 개념인 수줍음과 우울 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양효선, 김영혜, 2011; 오가혜, 안창일, 2006) 또한 수줍음이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켰음을 보고였다. 더 나아가, 사회적 위축을 수줍음, 비사고성, 회피와 같은 하위요인들을 통해 살펴본 윤미설과 이동형(201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위축의 세 가지 하위요인들은 모두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켰다. 전술한 논의는 사회적 위축이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에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지는 청소년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또래 친구들과의 애착이 높을수록(안혜영, 현혜진, 최정명, 박승미, 이주현, 2014; 전숙향, 은헌정, 최말레, 김병조, 김태형, 2014), 우울은 감소하였다. 반면, 또래 친구 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Fiorilli, Capitello, Barni, Buonomo & Genile, 2019), 부정적인 관계(우채영 외, 2010),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승연 외, 2018)은 우울을 증가시켰다. 이는 부정적인 친구관계는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유추하게 한다.

#### 4) 부모 과잉간섭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는 부모의 과잉간섭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우선, 사회적 위축은 부모 과잉간섭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는 연구(이은경, 이선희, 2017; 최태산, 김자경, 2016)는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녀가 사회적인 관계들을 맺는 과정에서, 위축되게 함으로써 우울을 경험하게 함을 유추하게 한다. 또한 과잉으로 간섭하고 보호하는 양육은 교우관계(김봉금, 김상철, 2017), 대인관계 문제(김수경, 안도희, 2020)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지나치게 관여하며 보호하려고 하는 양육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울을 경험하게 함을 의미한다. 위 논의들은 사회적 위축과 교우관계가 각각 부모 과잉간섭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할 것임을 유추하게 한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자녀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쳤고(신선미, 이소연, 2017), 과잉간섭과는 달리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은 사회적 위축의 정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자녀의 부정적인 교우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이의빈, 2020). 사회적 위축, 또래관계 피해경험

과 우울 간 관계를 살펴본 이승연과 동료들(2018)은 사회적 위축이 또래관계 피해경험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위 논의들은 사회적 위축이 교우관계에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하게 함과 더불어, 사회적 위축과 교우관계가 부모 과잉간섭과 우울의 관계를 각각 매개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매개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 4) 그 밖의 영향 요인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통하여 우울과, 더 나아가 사회적 위축,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성별은 또래관계 질(신선미, 이소연, 2017), 우울 및 우울 증상(정소희, 이경희, 2016; Allgood-Merten, Lewinsohn & Hops, 1990; Hankin, Mermelstein & Roesch, 2007; Petersen, Sarigiani & Kennedy, 1991)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어왔다. 또한, 사회적 위축과 유사한 변인인 사회불안의 정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이승연, 김희화, 2015)를 미루어보았을 때, 사회적 위축에도 성별 간 차이가 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사회적 위축(김은서, 정슬기, 2019), 우울(김은서, 정슬기, 2019; 윤명숙, 조혜정, 이희정, 2009)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계층에 따라 긍정적인 친구관계 정도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한 연구(박은정 외, 2018) 또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우울과 교우관계,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업 성적은 사회적 위축(김은서, 정슬기, 2019), 친구관계(유평수, 2010), 우울(김은서, 정슬기, 2019)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되어왔다. 또한 우울하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한 집단에서 성적이 더 낮았다는 연구(Field, Miguel & Sanders, 2001) 또한 성적이 우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유추하게 한다.

### III. 연구방법

#### 1.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4 패널을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09년 교육부의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표집된 초 1 학생 2,342명, 초 4 학생 2,378명, 중 1 학생 2,351명, 총 7,071명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구축된 패널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 4 패널의 7차년도(고 1) 데이터에서 결측치들을 제거하고 남은 총 1,964명의 케이스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변수

##### 1) 종속변수: 우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의 경우,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와 같은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을 합한 값이 클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고자 응답 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와 같이 역코딩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59$ 였다.

##### 2) 독립변수: 부모 과잉간섭

부모의 과잉간섭 척도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원하는 일을 못 하게 하실 때가 많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들을 합산한 값이 클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의 정도가 크다고 해석하고자 응답범주를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와 같이 역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 과잉간섭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29$ 였다.

### 3) 매개변수: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와 같은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들을 합한 값이 클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크다고 해석하고자 '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와 같이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98$ 이었다.

### 4) 매개변수: 부정적 교우관계

부정적 교우관계의 경우,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와 같은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범주는 '1=매우 그렇다' ~ '4=전혀 그렇지 않다'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문항을 합산한 값이 클수록 부정적인 교우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교우관계 척도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706$ 이었다.

### 5) 통제변수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울, 부정적 교우관계, 사회적 위축과 관련이 있다고 논의되어 온 성별, 가정의 경제적 수준 관련 변인과 성적 관련 변인인 주관적 평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응답 범주는 '1=남자', '2=여자'와 같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남자를 기준변수로 더미처리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의 경우,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활용하였는데, 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응답 범주는 '1=매우 잘 사는 편' ~ '7=매우 못 사는 편'과 같이 설정되어 있었다. 응답한 값이 클수록 가구의 경제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고자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적 관련 변인으로는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활용하였다.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1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1= 매우 우수' ~ '7=매우 미흡'과 같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값이 클수록 성적이 좋다고 평가함을 의미하고자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통하여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경향을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통하여 변수들 간 관계의 방향성과 다중공선성 문제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과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뒤,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확인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 IV. 분석 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의 경향

연구 대상자 중 남자 청소년은 1,030명(52.4%), 여자 청소년은 934명(47.6%)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경우, '매우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9명(1.5%),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19명(11.0%), 약간 못 사는 편은 316명(16.1%)이었다.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149명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하였다. 약간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80명(9.2%),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67명(3.4%)이었고, 매우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6명(0.3%)이었다. 덧붙여, 가구의 주관적 경제 수준의 평균은 4.26이었고, 표준편차는 .962였다. 학업 성적은 이 시기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모의 과잉간섭, 사회적 위축, 부정적 교우관계, 우울과도 깊은 관련을 지닌 요인이기에 성적에 대한 학생의 주관적 평가의 분포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신의 성적에 대해 매우 미흡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86명(4.4%), 미흡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27명(11.6%), 약간 미흡하다고 한 경우는 400명(20.4%)이었다. 보통 수준이라 응답한 청소년은 715명(36.4%)으로 가장 많았다. 약간 우수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08명(15.7%), 우수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76명(9.0%)이었고,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2명(4.4%)이었다. 덧붙여,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평균은 4.15였고, 표준편차는 1.339였다.

우울의 평균은 12.602이었고, 표준오차는 4.007이었다. 만점이 28점임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값보다 조금 낮은 값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과잉간섭의 평균은 8.568, 표준편차는 2.438이었다. 만점이 16점이었음을 미루어보았을 때 중간값에 가까운 평균값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위축의 평균은 10.890, 표준편차는 3.699였는데, 만점이 20점임을 미루어보았을 때, 중간값에 가까운 값이 도출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교우관계의 평균은 7.158, 표준편차는 1.702로 도출되었는데, 만점이 16점임을 미루어보았을 때, 중간값에 가까운 값이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변수들의 분포경향은 아래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결과

변수		N(%)	M(SD)
성별	남자	1030(52.4%)	
	여자	934(47.6%)	
주관적 가구의 경제적 수준	매우 못 사는 편	29(1.5%)	
	못 사는 편	219(11.0%)	
	약간 못 사는 편	316(16.1%)	
	보통 수준	1149(58.5%)	4.26(.962)
	약간 잘 사는 편	180(9.2%)	
	잘 사는 편	67(3.4%)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	매우 잘 사는 편	6(0.3%)	
	매우 미흡	86(4.4%)	
	미흡	227(11.6%)	
	약간 미흡	400(20.4%)	
	보통 수준	715(36.4%)	4.15(1.339)
	약간 우수	308(15.7%)	
	우수	176(9.0%)	
	매우 우수	52(4.4%)	
우울			12.602(4.007)
부모 과잉간섭			8.568(2.438)
사회적 위축			10.890(3.699)
부정적 교우관계			7.158(1.702)

## 2. 상관분석

주요 변수 간 방향성을 확인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우울은 독립변수인 부모의 과잉간섭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r=.217, p<.001$ ),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 $r=.499, p<.001$ ), 부정적 교우관계( $r=.379, p<.001$ )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 과잉간섭은 사회적 위축( $r=.106, p<.001$ ), 부정적 교우관계( $r=.255, p<.001$ )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 $r=.341, p<.001$ ) 또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인 변수들 간 상관 계수 값은 아래의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상관분석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1						
②	.217***	1					
③	.499***	.106***	1				
④	.379***	.255***	.341***	1			
⑤	.142***	-.109**	.037	-.025	1		
⑥	-.212***	-.022	-.204**	-.195***	-.038	1	
⑦	-.210***	-.101***	-.142***	-.209***	.006	.205***	1

① 우울, ② 부모 과잉간섭, ③ 사회적 위축, ④ 부정적 교우관계, ⑤ 성별, ⑥ 주관적 가구의 경제적 수준, ⑦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

\*\* $p<.01$ , \*\*\* $p<.001$

## 3. 모형 분석

### 1) 측정모형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적합도 확인 결과,  $\chi^2=1215.226(df=164,$

$p < .001$ ), CFI=.934, RMSEA=.057(90% C.I.= .054~.060), SRMR=.044로 양호한 적합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함을 의미한다.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적재량의 경우, 모든 문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2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값이 .5 이상이었다. 앞서 언급한 2개 문항도 값이 .5에 가까이에 제외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측정변수들이 이론적으로 잠재변수들의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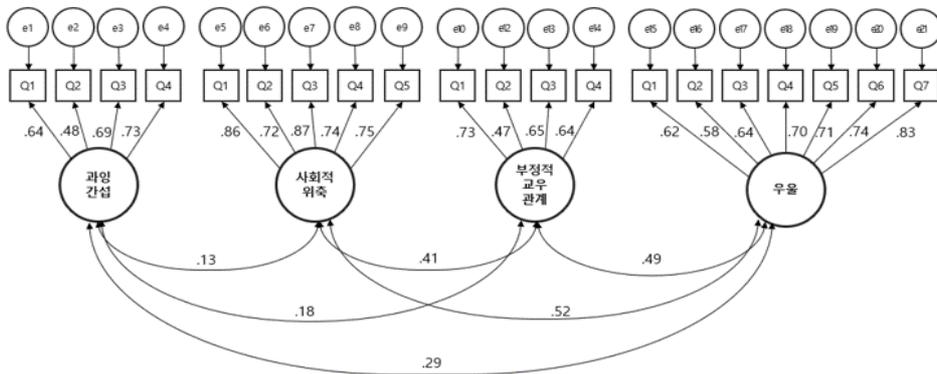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 2) 구조모형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1394.236(df=212, p < .001)$ , CFI=.928, SRMR=.041, RMSEA=.053(90% C.I.= .051 ~ .056)로 나타났는데, 비교적 양호한 적합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모형의 결과 및 변수들 간 경로계수는 <그림 2>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아래는 그에 대한 설명이다.

우선 사회적 위축의 경우, 부모의 과잉간섭( $B=.175, p < .001$ )과 성별( $B=.087, p < .05$ )은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가구의 경제적 수준( $B=-.151, p < .001$ )과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 $B=-.051, p < .001$ )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잉간섭적이라 지각할수록, 그리고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평가할수록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낮음을 가리킨다.

부정적 교우관계의 경우, 부모의 과잉간섭( $B=.081, p<.01$ ), 사회적 위축( $B=.188, p<.001$ )은 정적 영향을 미쳤고, 성별( $B=-.049, p<.05$ ), 주관적 가구의 경제 수준( $B=-.053, p<.001$ ),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 $B=-.049, p<.001$ )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잉간섭적이라 지각할수록,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부정적 교우관계의 정도가 높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부정적 교우관계의 정도가 낮으며,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평가할수록 부정적 교우관계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부모의 과잉간섭( $B=.212, p<.001$ ), 사회적 위축( $B=.258, p<.001$ ), 부정적 교우관계( $B=.398, p<.001$ ), 성별( $B=.179, p<.001$ )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잉간섭적이라 지각할수록,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높을수록, 부정적 교우관계의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관적 가구의 경제 수준( $B=-.031, p<.05$ ), 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 $B=-.035, p<.001$ )는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구의 경제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평가할수록, 우울의 정도가 낮음을 가리킨다.

요약하자면, 부모 과잉간섭은 자녀의 사회적 위축, 부정적 친구관계,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위축은 부정적 교우관계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교우관계 또한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여 부모의 과잉간섭이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를 경유하여 우울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과잉간섭이 우울에 이르는 경로에서 나타난 총효과는  $.303(95\% \text{ C.I.}=.231-.373)$ , 직접효과는  $.212(95\% \text{ C.I.}=.152-.278)$ , 총 간접효과는  $.090(95\% \text{ C.I.}=.053-.123)$ 으로, 모두 신뢰구간 95%에서 유의미했다. 개별적인 간접효과들을 살펴보자면, 과잉간섭에서 부정적 교우관계를 매개로 우울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032(95\% \text{ C.I.}=.013-.053)$ 였으며, 과잉간섭에서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우울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045(95\% \text{ C.I.}=.025-.070)$ , 과잉간섭에서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를 차례로 매개하여 우울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013(95\% \text{ C.I.}=.007-.021)$ 이었는데, 모두 신뢰구간 95%에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과잉간섭이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정적 방향으로 유의미하고,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

관계를 각각 통한 간접효과와 그 둘 모두를 통한 간접효과 모두 정적 방향으로 유의미했으며,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인 교우관계에 각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킴으로써 부정적인 교우관계의 정도를 증가시키고, 이는 차례로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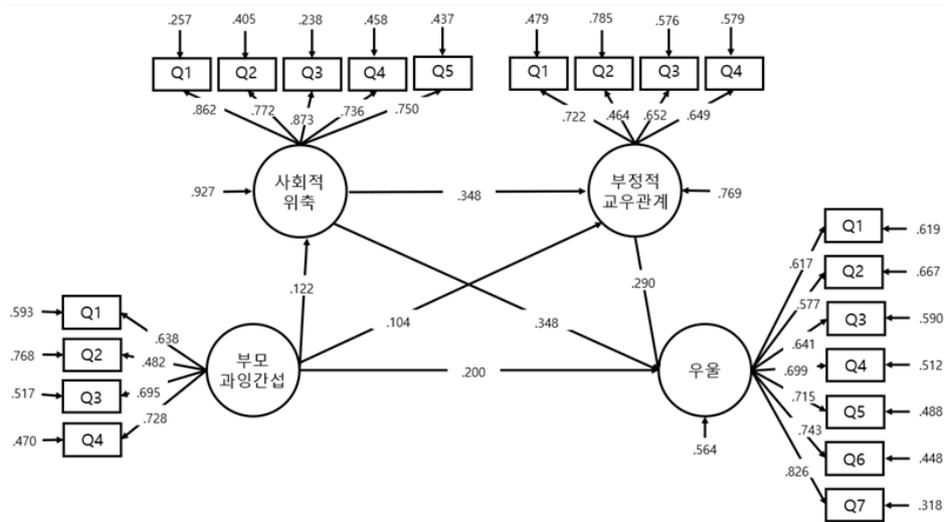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표준화 계수)

표 3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사회적 위축	← 부모 과잉간섭	.175***	.044	.122
	← 성별	.087*	.035	.057
	← 가구의 경제 수준	-.151***	.020	-.190
	← 성적에 대한 평가	-.051***	.014	-.089
부정적 교우관계	← 부모 과잉간섭	.081**	.027	.104
	← 사회적 위축	.188***	.018	.348
	← 성별	-.049*	.019	-.059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우울	← 가구의 경제 수준	-.053***	.011	-.124
	← 성적에 대한 평가	-.049***	.008	-.157
	← 부모 과잉간섭	.212***	.032	.200
	← 사회적 위축	.258***	.024	.348
	← 부정적 교우관계	.398***	.040	.290
	← 성별	.179***	.023	.157
	← 가구의 경제 수준	-.031*	.014	-.053
	← 성적에 대한 평가	-.035***	.009	-.082
효과분해(비표준화)			Estimate	95% C. I.
Total effect			.303	.231 ~ .373
Total Indirect effect			.090	.053 ~ .123
Specific Indirect effect				
우울←부정적 교우관계←부모 과잉간섭			.032	.013 ~ .053
우울←사회적 위축←부모 과잉간섭			.045	.025 ~ .070
우울←부정적 교우관계←사회적 위축←부모 과잉간섭			.013	.007 ~ .021
Direct effect			.212	.152 ~ .278

\* $p < .05$ , \*\* $p < .01$ , \*\*\* $p < .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과잉간섭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부모의 과잉간섭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과잉보호(김원영 외, 2017), 과잉간섭(김가연, 박주희, 2019; 김봉금, 김상철, 2017), 심리적 통제(김희경, 김해란, 2017; Cui et al., 2014)가 우울을 증가시켰다는 연구들과 상통하다. 자녀를 자율적이고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양육은 자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므로써 우울을 경험하게 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사회적 위축은 부모의 과잉간섭과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하였다. 사회적 위축이 부모의 과잉간섭과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하였다는 기존의 연구(이은경, 이선희, 2017; 최태산, 김자경, 2016)와 같은 맥락에 있다. 부모의 과잉간섭은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 관계들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대인관계 문제해결 기술과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그에 따라 우울을 경험하게 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교우관계 또한 부모의 과잉간섭과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하였다.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보호하려는 양육이 교우관계(김봉금, 김상철, 2017),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김수경, 안도희, 2020)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 있다. 부모의 과잉간섭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 습득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가리킨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울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는 부모의 과잉간섭과 우울 간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였다. 다시 말해, 부모의 과잉간섭이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위축은 차례로 부정적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교우관계는 차례로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양육방식은 자녀를 위축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을 경감시키지 못하고 위축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 자녀들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불안정감, 두려움 등을 느끼고 회피하거나 고립됨으로써 부정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처럼 친구들과 긍정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한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부모 과잉간섭, 사회적 위축, 교우관계, 우울 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부모의 과잉간섭과 우울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위축과 부정적 교우관계 각각의, 그리고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변인들 간 관계를 보다 구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앞서 다룬 것처럼, 잔존하는 유교문화의 영향과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현상의 영향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간섭과 통제가 문제시되지 않고, 부모-자녀 관계가 밀착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태도가 문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경우, 대입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의 관심이 증가하여 과잉간섭을 경험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전술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녀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는, 긍정적인 부모 양육태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미루어보았을 때, 청소년 자녀의 우울을 감소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등 다면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가정에서는 부모, 가정에서의 양육이 자녀의 대인관계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 양육방식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 자율성과 독립성 추구라는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적 욕구를 존중해줄 수 있는 양육태도의 필요성과, 청소년 자녀가 가족 테두리 밖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에 가정 내에서의 관계가 미칠 수 있는 영향 또한 지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노력은 자녀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함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학교는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차적인 스크리닝 지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협업하여 서비스들을 연계함으로써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령, 우리나라 「학교보건법」과 해당 법 제7조 및 제7조3의 규정에 의거한 학교건강검사규칙에는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건강 및 정신건강에 대한 학교 건강검사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있고, 이에 근거하여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건강검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우울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 서비스 연계 등 개입을 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사회 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고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학교 측에서는 우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해당 서비스들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도움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김선하, 김춘경, 2010; 엄지원, 김정모, 2013)들이 청소년 우울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 및 프로그램들을 운영,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미루어보았을 때, 부모의 양육방식 관련 요인은 청소년의 우울에 개입하는 데에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인이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 중 가정 내 양육방식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시, 가정에 양육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 양육 관련 프로그램,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에 학생과 가족을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위축과 교우관계가 부모의 과잉간섭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 간 관계를 매개하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미루어보았을 때, 사회적 위축, 교우관계는 중요한 개입의 지점이 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위축은 부정적인 교우관계의 선행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박지환, 유형근, 조용선, 2013; 이경희, 이규미, 2012; 이문희, 이영순, 2013)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양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보고해왔다. 더욱이 대인관계 관련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김선하, 김춘경, 2010). 이를 미루어보았을 때, 위와 같은 다양한 사회성 향상 관련 개별 및 집단 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거나, 지역사회 내 사회성 증진 관련 프로그램에 학생을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 간 관계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과잉간섭이 사회적 위축, 부정적 교우관계, 우울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는지, 유아기에 경험한 부모 과잉간섭이 중/후기 청소년의 사회성,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성별은 사회적 위축과 교우관계,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후속연구에서 부모의 과잉간섭이 사회적 위축과 교우관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면, 본 주제에 대해 보다 풍성하게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석임, 이윤정, 정명숙 (2019). 청소년의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5(2), 67-76. doi:10.17703/JCCT.2019.5.2.67
- 김가연, 박주희 (2019). 헬리콥터 부모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주장성의 매개효과. **Korean J Child Stud**, 40(4), 165-177. doi:10.5723/kjcs.2019.40.4.165
- 김경신, 박옥임, 임형택, 이민창, 김오남 (2007). **청소년복지론**. 서울: 청목출판사.
- 곽영희, 정현희 (2011). 청소년의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8), 45-64.
- 김무경, 오윤희, 오강섭 (2005).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사회 불안 증상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3), 599-614.
- 김보경, 민병배 (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221-236.
- 김봉금, 김상철 (2017). 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친구요인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2), 493-504. doi:10.5392/JKCA.2017.17.12.493
- 김서현, 김혜슬, 임혜림 (2013).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간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10), 339-368.
- 김선하, 김춘경 (2010). 대인관계 집단치료와 인지행동 집단치료가 청소년 우울 및 관련 변인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7(3), 55-86.
- 김수경, 안도희 (2020).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과보호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6(2), 239-263. doi:10.24159/joec.2020.26.2.239
- 김수진, 장형심 (201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잉간섭이 공격성,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 851-874. doi: 10.22251/jlcci.2019.19.20.851
- 김윤경, 박주희 (2018).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의 전환기 동안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에 미치는 부모의 과잉간섭의 영향과 또래유능성의 동시 및 지연효과. **Korean J Child Stud**, 39(4), 93-105. doi:10.5723/kjcs.2018.39.4.93
- 김원영, 서봉언, 김경식 (2017). 과보호 양육,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위축이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1, 41-69. doi:10.17854/ffyc.2017.07.51.41

- 김은서, 정슬기 (2019). 청소년이 인식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정신건강: 사회적 위축의 매개 효과. **알코올과 건강행동연구**, 20(2), 69-83. doi:dx.10.15524/KSAS.2019.20.2.069
- 김은아, 배민영 (2016).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9), 155-176. doi:10.21509/KJYS.2016.09.23.9.155
- 김현순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1(3), 409-437.
- 김희경, 김해란 (2017). 남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우울 및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 107-135. doi:10.21509/KJYS.2017.01.24.1.107
-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8).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학교급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31-55. doi:10.22251/jlcci.2018.18.2.31
- 박지은, 설경옥, 정희원 (2016).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에서 어머니-자녀관계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매개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113-133.
- 박지환, 유형근, 조용선 (2013). 고등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학급단위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교원교육**, 29(4), 47-72. doi: 10.14333/KJTE.2013.29.4.47
- 배경의, 김은하 (2007).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 가족 기능, 자아정체감과 우울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3(3), 357-366.
- 서경현 (2012).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 207-226.
- 신선미, 이소연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또래관계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0(1), 49-64. doi:10.17641/KAPT.20.1.3
- 신혜정, 정익중, 이상아, 이향연, 박재연 (2014). 청소년의 우울,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27, 25-50.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안명희 (2014).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우울 모-자녀 관계만족도, 분노,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37-760.

- 안혜영, 현혜진, 최정명, 박승미, 이주현 (2014). 여중생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학교 생활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7(3), 140-147.  
doi:10.15434/kssh.2014.27.3.140
- 양효선, 김영혜 (2011). 청소년의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효과검증. **청소년학연구**, 18(10), 187-206.
- 엄지원, 김정모 (2013). 마음챙김 명상에 기초한 인지치료(MBCT)가 고등학생의 주의 집중력과 우울 및 불안 감소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0(3), 159-185.
- 오가혜, 안창일 (2006). 수줍음과 우울의 관계 -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3), 657-673.
- 우채영, 박아청, 정현희 (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9-38.
- 유지애, 김육진 (2018).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3), 241-273. doi:10.14816/sky.2018.29.3.241
- 윤명숙, 조혜정, 이희정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음주행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5(4), 347-370.
- 윤미설, 이동형 (201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적 기능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2(9), 301-326.
- 이경희, 이규미 (2012). 고등학생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3(3), 1537-1561. doi: 10.15703/kjc.13.3.201206.1537
- 이문희, 이영순 (2013). 성격 강점에 기반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탄력성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13-831.
- 이승연, 송경희, 정혜원 (2018).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우울의 구조적 관계: 고정신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84.
- 이승연, 김희화 (2015).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에 대한 부모의 과잉간섭과 친구관계 질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3(1), 85-94.
- 이은경, 이선희 (2017). 부모의 과잉간섭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2(4), 543-563. doi:10.13049/kfwa.2017.22.4.1
- 이은희, 정순옥 (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친구관계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7(2), 213-239.

- 이의빈 (202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학교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8), 31-59. doi:10.21509/KJYS.2020.08.27.8.31
- 이정선, 이형실 (2012).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4(4), 77-89.
- 임성범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사회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1), 68-105. doi:10.15709/hswr.2017.37.1.68
- 임수경, 이형실 (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3), 169-183.
- 전숙향, 은헌정, 최말래, 김병조, 김태형 (2014).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불안의 매개 효과. **신경정신의학**, 53(4), 246-253. doi:10.4306/jknpa.2014.53.4.246
- 정문경 (2020).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학교사회복지**, 49, 201-227. doi:10.20993/jssw.49.9
- 정소희, 이경희. (2016). 부모의 과잉간섭과 과잉기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우울, 공격성, 자존감,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2, 313-342. doi:10.16975/kjfs.2016..52.010
- 정옥분 (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일영 (2019). 사회적 위축이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중독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3(3), 232-264.
- 조윤영, 배희진, 정현희 (2019).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정적 양육경험과 우울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학교 내 대인관계의 다중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7(4), 673-704. doi:10.25152/ser.2019.67.4.673
- 최규련 (2010). 가족환경과 학업 및 친구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95-111.
- 최미혜 (2015). 부모의 헬리콥터형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친구관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7(2), 181-205.

- 최은경, 임정하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청소년연구**, 29(3), 101-127. doi:10.14816/sky.2018.29.3.101
- 최태산, 김자경 (2016). 부모의 과잉간섭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3), 393-414.
- 한아름, 김정민, 강슬아 (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7(2), 103-115.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llgood-Merten, B., Lewinsohn, P. M., & Hops, H. (1990). Sex differences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1), 55. doi:10.1037/0021-843X.99.1.55
- Barzeva, S. A., Meeus, W. H., & Oldehinkel, A. J. (2019).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Measurement issues, normative development, and distinct trajector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7(5), 865-879. doi: 10.1007/s10802-018-0497-4
- Baumgardner, M., & Boyatzis, C. J. (2018). The role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warmth in college students' relational aggression and friendship quality. *Emerging adulthood*, 6(1), 72-76. doi:10.1177/2167696817712809
- Costa, S., Cuzzocrea, F., Gugliandolo, M. C., & Larcana, R. (2016).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support, and psychological outcomes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Child Indicators Research*, 9(4), 1059-1076. doi:10.1007/s12187-015-9353-z
- Cui, L., Morris, A. S., Criss, M. M., Houlberg, B. J., & Silk, J. S. (2014).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adjustment: The role of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14(1), 47-67. doi:10.1080/15295192.2014.880018
- Field, T., Miguel, D., & Sanders, C. (2001). Adolescent depression and risk factor. *Adolescence*, 36(143), 491.

- Fiorilli, C., Capitello, T. G., Barni, D., Buonomo, I., & Gentile, S. (2019). Predicting adolescent depression: The interrelated roles of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stressors. *Frontiers in psychology, 10*, 565. doi:10.3389/fpsyg.2019.00565
- Frazer, A. L., Cooley, J. L., Fite, P. J., & Poquiz, J. (2018). Anger inhibition moderates the link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eer victimiz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64*(3), 376-396. doi:10.13110/merrpalmquar1982.64.3.0376
- Ha, J. H., & Jue, J.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inhibition and emotion regulation betwee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epression. *SAGE Open, 8*(3), 1-11. doi:10.1177/2158244018793680
- Hankin, B. L., Mermelstein, R., & Roesch, L. (2007).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Stress exposure and reactivity models. *Child development, 78*(1), 279-295. doi:10.1111/j.1467-8624.2007.00997.x
- Kouros, C. D., Pruitt, M. M., Ekas, N. V., Kiriaki, R., & Sunderland, M. (2017). Helicopter parenting, autonomy support, and college students' mental health and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 of sex and ethnici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3), 939-949. doi:10.1007/s10826-016-0614-3
- McLeod, G. F., Horwood, L. J., & Fergusson, D. M. (2016). Adolescent depression, adult mental health and psychosocial outcomes at 30 and 35 years. *Psychological medicine, 46*(7), 1401. doi:10.1017/S0033291715002950
- Petersen, A. C., Sarigiani, P. A., & Kennedy, R. E. (1991). Adolescent depression: Why more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247-271.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doi: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42
- Rubin, K. H., Coplan, R. J., Bowker, J. C., & Menzer, M. (2014). Social withdrawal and shyness. In P. K. Smith & C. H. Hart (Eds.), *Wiley Blackwell handbook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The Wiley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434-452). Wiley-Blackwell.

Soenens, B., Park, S. Y., Vansteenkiste, M., & Mouratidis, A. (2012).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ve experiences: A cross-cultural study with Belgian and South-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5(2), 261-272. doi:10.1016/j.adolescence.2011.05.001

## ABSTRACT

### The effect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over-intrusiveness on depress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withdrawal and negative classmate relationships

Lee Eui Bhin\* · Gwon Seo Yeong\*\* · Kim Yuae\*\* · Lim Su Ji\*\*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over-intrusiveness on adolescents' depress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negative classmate relationships. 1,964 cases, taken from the 7th wave data(high school 1st year) of KCYPS 2010 were use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were conducted. The primar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Parental over-intrusivenes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and negative classmate relationships respectiv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over-intrusiveness and depression. The indirect effect of parental over-intrusiveness on depression via the sequence of social withdrawal and negative classmate relationshi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parental over-intrusiveness,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negative classmate relationships, mediating effect, KCYPS

투고일: 2020. 9. 7, 심사일: 2020. 11. 12, 심사완료일: 2020. 11. 23

---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 lebhin@naver.com

\*\* MSW, Sungkyunkwan University

\*\*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